

## 종이 필름 밴딩기 완전 자동시스템 구축

### 고부가가치 지향 경영 통해 독창성 확보 및 고객 만족 실천



김 성 복  
태현포장기계 대표

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한 필요 요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어떤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두 번째 관건이라고 할 때,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철저한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증수표라고 하겠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 공급을 통해 품질경쟁력은 물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종이 필름 밴딩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태현포장기계(대표 김성복)를 찾았다.

10여년 동안 국내 밴딩 관련 업체에서 기술적 노하우



▲ 코리아팩에 참가한 태현포장기계

를 습득해 온 김성복 사장은 지난 2000년 4월 강동구 고덕동에 태현포장기계를 설립, 2001년 국내 최초로 필름, 종이 결속기 및 밴딩기용 테이프의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80미크롬 필름테이프의 개발을 완료한 태현포장기

계는 2002년 일본 BANDEX사와 국내 총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하게 된다.

2003년 3월에는 부산지사로 PACKALL을 설립, 결속 필름 110미크롬 필름테이프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2004년 8월, 현재의 경기도 하남으로 공장 및 사무실을 이전,

발전하고 있다.

태현포장기계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PP밴드가 산업 폐기물로 치부되는 등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점을 감안, 2002년부터 PP밴드의 경우 기존의 거래선만 관리하며, 종이 및 필름 밴딩기에 주력한 결과 국내 유수의 식품관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해외 밴딩 시장 개척을 통해 발전해 온 태현포장기계는 현재 국내 포장전문전시회 코리아팩(KOREA PACK)과 부산국제식품전, 국제인쇄산업전은 물론,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해외 전시회에 참관을 지원하는 등 업무협약에 주력, 대내외적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도쿄팩과 오사카 A-PACK에 일본 BANDEX사 전시회 참관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BAND'ALL INTERNATIONAL사와 자동 및 전자동 밴딩기의 국내 총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태현포장기계 필름 밴딩을 적용한 제품들

# TAE HYUN

네덜란드 제조업체 BAND'ALL은 밴딩의 표준으로 현재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허를 받은 밴드 공급시스템은 태현포장기계가 선두주자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성복 사장은 “품질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발은 제품의 생명과도 같다”면서 “탁상형 모델에서부터 주문자 방식까지 포괄적인 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표준형 밴딩 재질은 태현포장기계에서 만들고 있으며, 각 제품들은 세계 35개국의 태현과 물품공급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이 활동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A/S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태현은 2005년 일본 NICHIRD KOGYO 오사카 지점과 결속필름 110

미크롬 수출 계약을 체결, 연 10,000롤을 공급하기도 했다.

현재 태현포장기계가 취급하고 있는 표준형 종이 필름 밴딩기 BAND'ALL은 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종이 또는 필름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질과 테이프 폭, 두께를 선택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포장을 돕는데 일조



◀ 탁상용 필름·종이겸용 결속기 UB240(좌), 종이·필름 밴딩기 BA24(우)

한다.

분당 25~30개의 밴딩이 가능하며 포장재질에 대한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얇은 테이프를 공급할 수 있는 테이프 투입 시스템을 갖고 있어 제품 밴딩에 탁월하다.

태현의 시스템은 다양한 시장과 생산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장점이 있다.

식품산업, 인쇄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경량제품 포장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밴딩 속도와 접착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컨베이어나 프린트 등

여러 설비들과도 연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의 경우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컬러로도 인쇄가 가능하다.

종이 필름 밴딩기(날인형 부착기) BA 24의 경우, 분당속도 25~45개가 가능하며 탁상용 필름 및 종이겸용 결속기 UB240은 카톤박스, 약봉지, 상자, 스티커, 1회용도시락, 영수증 등을 50~100매 단위로 결속할 수 있다.

BA24는 종이의 경우 제품 폭 30~240mm까지, 필름의 경우 제품 폭 30~170mm까지 결속이 가능하다.

창립 후 2003년도까지 김성복 사장은 홀몸으로 태현을 이끌면서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제품은 친환경적이어서도 재생과 처리가 쉽다”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해 온 것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금번 태현포장기계는 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도입에도 힘을 쏟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역점을 둬으로써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 완벽한 고객 만족을 실천하여 초우량 기업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에 도전하는 경영, 고객을 존중하는 경영,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을 토대로 효율적인 A/S를 지원하는 등 고객만족에 아낌없이 주력하고 있는 태현포장기계. 고품질의 포장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는 태현포장기계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 TOKYO PACK 2006 전시회 BANDEX사 부스 전경